

중앙교회 자녀와 함께 하는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274장 다같이

1.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2. 내 어둔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3.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4.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 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사무엘상 19:18-24(표준새번역) 인도자

- 18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 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뭇으로 가서 살았다.
- 19 다윗이 라마의 나뭇에 있다는 소식이, 곧 사울에게 들어갔다.
- 20 사울은 다윗을 잡아 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 21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리니, 사울이 다른 부하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는 것이었다. 사울이 다시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내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였다.
- 22 드디어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라마의 나뭇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 23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뭇으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뭇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 24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 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 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설 교 “ 라마 나옴의 기적 ”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1. 자녀를 위한 기도(부모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가 중앙교회 꿈의 정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도록 도와주세요!

2. 부모님을 위한 기도(자녀들)

하나님! 아빠와 엄마 그리고 우리 가족이 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가정되도록 도와주세요!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라마 나웃의 기적”

(사무엘상 19:18-24)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군왕은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사울을 극복하고 통일된 이스라엘이라는 왕정국가 나라를 세워 실제적인 개국을 성공시킨 왕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크게 번영시킨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 그는 매우 복합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매우 아름다웠던 미소년이고 충성스러운 목자였다가 노래를 아주 잘하는 시인이며 동시에 유능한 전사이기도 했으며 책임감 있는 리더로서 등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 삶의 이토록 많은 다양한 국면들과 특성들 가운데 정말 다윗의 본질적 내면은 어떤 것일까요? 군왕으로서 그리고 실제적인 개국의 왕으로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많은 그의 삶의 다양성들을 보면서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리고 잊지 못할 그의 평생을 형성하고 어떤 위기에서도 그를 지켜준 그의 본질적 경험이 어디에 있을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성경에서 보여준 다양성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가 수많은 시편을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들은 한결같이 가장 깊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던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그가 비록 주변의 세계와 사회의 현실들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지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모든 역경을 극복하면서 결국 주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다는 불굴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시편에 남겨놓은 그 불굴의 신앙은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끊임없이 쫓기고 자기를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과 더불어 은밀하게 숨어지내면서 근근이 이어져야 했던 그의 삶 속에서 언제 그가 그런 불굴의 신앙을 배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줍니다. 다윗이 아직 어렸을 때, 물론 어느 정도 유능한 전사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는 사울의 질투 앞에 하루살이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몸을 의탁하기 위해 라마 나웃으로 도망쳐 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사무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라마 나웃은 어떤 곳이었나요?

그곳은 놀라운 곳입니다! 일단 외관상으로 보아 그곳은 선지자 학교, 오늘날 신학교였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그곳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의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선지자 무리”라고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수장으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는 무엇을 위해 모인 것일까요? 이 무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를 배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는가를 간구하면서 그 특수한 경험을 전수받기도 하며 또한 새로운 영성 체험을 위해 간구하는 그런 전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라는 것을 제시해줍니다. 바로 신학교이지요. 다윗은 거기에서 살아있는 영성적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이루어진 진정한 근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공동체는 얼마나 은혜로운 공동체였나요? 거기에는 악의를 품고 다가오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며 자신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예언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악한 자라도 그 공동체와 만나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영성이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우리는 이루기를 원합니다. 중앙성결교회가 그렇고 우리 서울신학대학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한 쉬운 설교

다윗을 싫어한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을 붙잡아서 괴롭히기 위해서 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라마라는 지역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도망갔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며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라마의 나뭇으로 갔습니다. 이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 훈련하는 선지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선지자들의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라마 나뭇에 있다고 일렸습니다. 이에 사울은 다윗을 붙잡기 위해 군사를 보냈습니다. 세 번이나 보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다윗이 있는 선지자들 무리에 가까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언자들처럼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했습니다. 사울도 나중에는 직접 다윗을 붙잡기 위해 왔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들처럼 소리치고 춤추며 예언을 하며 결국 다윗을 잡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갔고 만나고 훈련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교회에 올 때 은혜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합시다.